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용지 선분양

산업·상업시설 용지 등 69필지... 43만7998㎡ 2019년 11월 준공
산업용지 분양가 3.3㎡당 80만원 이하 저렴하고 교통물류 최적지

광양시는 태인동 명당마을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산업·지원·상업시설용지 등 총 69필지를 선 분양한다고 밝혔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마지막 개발지역인 명당3지구는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43만7998㎡의 부지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국도 2호선과 59호선이 통과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월IC와 경남 하동IC가 10분 거리에 위치한 교통물류의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근에 배알도 수변공원과 수변공원~배알도를 잇는 해상보도교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태인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휴식과 생산이 어우러진 최적의 산업단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분양대상 용지는 산업시설용지 25필지(25만301㎡), 지원시설용지 39필지(1만5913㎡), 상업시설용지 2필지(1431㎡), 주차장시설용지 3필지(6722㎡) 등이다.

용도지역별 입주대상 업종으로는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복합업종(C23, C24, C25, C29)이 해당된다.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등이, '상업시설용지'의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한 일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상업지역에서 가능한 업종이어야 한다.

분양일정과 방법은 산업시설용지와 그 밖의 용지로 구분해 각각 진행되며, 산업시설용지는 오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한

■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위치도



국산업단지공단 광양사무소에서 입주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입주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이 이뤄진다.
지원·상업·주차장용지는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지별 분양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 계약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하는 명당3지구는 산업입지 여건은 물론 교통망과 경관도 아주 좋으며 산업시설용지는 분양가를 3.3㎡당 80만 원 이하로 공급한다"며 "명당3지구 산업용지를 준공 전 조기에 분양해 산업단지 개발 재원을 마련하고 우량 기업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유치해 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양(입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양사무소(070-8895-7988, 7998), 용지분양에 관한 사항은 시청 산단과(061-797-3119, 311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섬진강 둔치를 따라 조성된 광양 자전거길은 다양한 계절꽃과 함께 아름다운 풍광으로 전국 라이더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섬진강곶들마을서 아트자전거·캠핑 즐겨요

광양시 26~28일 이색 체험행사

광양시가 섬진강곶들마을(진월면 사평마을)에 아트자전거와 캠핑이 어우러진 이색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섬진강변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트자전거 제작 및 캠핑' 행사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개최 대상지인 사평마을은 섬진강 둔치를 따라 유채꽃과 꽃구미 등 다양한 계절꽃과 함께 섬진강 자전거길 코스 구간이 있어 전국 라이더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주된 행사가 예정된 옛 진월중학교(폐교)는 시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9월 숙박동, 식당, 카페, 캠핑장 등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또 행사장 주변에는 섬진강벚길복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무터 복원과 MTB 체험장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이색 자전거 체

험이 가능하도록 아트자전거 35대를 제작하고, 주변 관광 자원과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섬진강 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특히 아트자전거 제작에는 조선대학교 미대생 30여 명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어 행사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지역 주민과 아트자전거 제작자 간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해 행사 이후에도 체험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아트자전거 관리와 임대 등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울과 협약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 중 6 권역인 남도바닷길의 거점사업지로 옛 진월중학교를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 섬진강권역은 천혜의 자연과 재첩, 전어 등 신선한 먹거리, 자전거길, 운동주 유교보존 정병육 가족의 인문학적 가치 등 관광의 주된 요소가 잘 융합된 보석 같은 곳이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섬진강 관광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희망도서관 올해 '길 위의 인문학' 강연 마무리

광양희망도서관은 지난 9일 세계시민학교 교육을 끝으로 2018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희망도서관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차별 없는 세상, 함께 하는 우리'를 주제로 총 12차례의 강연과 탐방을 진행해 왔다.

강연은 '장애인', '동물 복지', '환경 보호', '세계시민교육' 등 총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광양을 비롯해 순천과 하동, 전주 등을 다니며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별과 문제를 인식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등을 쓴 장애를 이겨낸 고령욱 작가

와 원조 개통령, 상근이 아빠 등의 별명을 가진 이용중 교수를 초청해 장애인식 개선과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태안 유출 사고로 인한 자연 파괴와 이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책으로 그린 박수에 작가가 도서관을 직접 찾아와 수준 높은 강연을 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길 위의 인문학' 강연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차별에 대해 지역의 아이들이 고민해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광양희망도서관이 진행한 '길 위의 인문학' 세계시민학교 강의.

광양시,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총력

융자금 이차차액보전 100개 업체 추가 모집

광양시가 장기간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차액보전(이차차액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할 100개 업체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융자금 최대 300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고,

연간 이차 3%를 2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그동안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으로 매년 2억원의 시비를 투자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740개 업체에 200억원 융자와 8억원의 이자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260개소에 100억원의 융자와 3억원의 이자를 지원해 금융압박으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주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광양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기존 정

책자금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나 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광양시청 지역경제과(061-797-3350)로 연락하면 되며, 자격요건 검증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불법 사금융업체로 내몰린 것을 막고, 높은 이차 부담을 덜어줘 금융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항만물류고 '영마이스터' 인재육성 협약

전문가 특강·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 산학 협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는 지난 15일 월드마린센터에서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교장 허동균)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항만물류산업분야 영마이스터(Y-Meister) 인재 육성을 통해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 협력기로 했다.

양 기관은 물류고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체 전문가 특강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교육 및 멘토링 ▲현장체험학습 지원 ▲취업 대상 기업체 발굴 및 홍보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시행중인 공사의



'Incubating PLM(Port Logistics Meister)' 프로그램을 확대해 물류고 학생을 산업 수요 맞춤형 영마이스터(Y-Meister)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주광역시 인구가족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함께 하면 든든육아 성공비법

직장
가족
이웃

직장
이웃

직장
이웃

직장
이웃

직장
이웃

직장
이웃

직장
이웃

직장
이웃

직장
이웃

직장
이웃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